

The Guardian, 2025. 2. 14

##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 글로벌 AI 규제 협력의 한계 노출



파리 AI 정상회의에서 미국 부통령이 유럽 규제를 비판하고 미국과 영국이 선언 서명을 거부하면서 글로벌 AI 거버넌스 합의 과정의 어려움 확인



Google AI 유닛 대표 허사비스(Hassabis), 인공지능반지능(AGI) 출현이 불과 5~10년 정도 남았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기술발전의 가속화 속에서 국제 협력의 중요성 강조

### 패권 경쟁 속 AI 규제 합의의 과제

2025년 2월 10일 파리에서 열린 제3차 'AI 행동 정상회의'는 글로벌 AI 규제 합의의 어려움을 보여줬다. 미국은 'AI 아메리카 우선주의'를 내세워 포괄적 규제가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JD Vance 부통령은 유럽의 '규제 공포'에 비판적 입장을 밝히며, 중국과의 협력에 대한 경계심을 보였다. 미국과 영국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AI'를 위한 공동선언문 서명에 불참하면서, 참가국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가운데,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은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제로 남아 있다.

### 수년 내, 인류를 앞설 AI의 등장?

앞선 영국 정상회담에서 최우선 의제로 다뤄졌던 'AI 안전'은 이번 파리에서는 더 이상 유일한 중심 화두가 아니었다. 세계적인 컴퓨터 과학자 Yoshua Bengio는 "인류가 자신보다 지능이 높은 기계에 대한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Google AI 유닛 대표 Demis Hassabis는 AI의 기만적 행동 가능성을 경고하며 국제 협력을 촉구했다. 그는 **인공일반지능(AGI)**이 불과 5~10년 내에 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Anthropic CEO인 Dario Amodei는 차세대 AI가 '고도의 지능을 가진 새로운 국가'처럼 경제 질서를 재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프랑스 Macron 대통령은 AI 산업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 문제를 거론하며, 원자력 중심의 프랑스가 "플러그만 꽂으면 되는" 안정적 전력 공급 구조를 갖추고 있다며 강조했다.

### AI 정상회의: AI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작된 국제 협력

AI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제 협력은 2023년 11월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개최된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동참을 만들어 내는 계기가 되었다. 영국은 이 회의를 계기로 AI안전연구소를 설립했으며, 미국(2023. 12)과 일본(2024. 2)이 순차적으로 AI안전연구소를 개소했다. 2024년 5월 AI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한국 정부가 AI안전연구소 설립을 공식화하며 AI 안전 과학 증진을 위해 각국 AI안전연구소 등 유관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2024년 11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영국, 일본, EU 등 10개국이 포함된 AI 안전 네트워크가 출범하여 AI 안전을 위한 국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2월의 용어** 인공일반지능, 인공초지능, 인공협소지능, 기술적 특이점

출처 : 1) The Guardian(2025. 2. 14), Global disunity, energy concerns and the shadow of Musk: key takeaways from the Paris AI summit

2)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2024. 9), SW중심사회 9월호\_JSSUE 2, 해외 AI안전연구소 추진 현황과 시사점